

수입 금지된 일본 농산물

지난해 3월에 일어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은 대부분 감소하였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조치를 강화한 데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구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수입이 금지된 일본 농산물 목록을 알아본다. 글/ 박영화 편집부



농산물 수입 금지 식품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농산물에 대한 식품을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차단하고 있다. 잠정 수입 중단된 농산물은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등이며, 잠정 수입이 중단된 지역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미야기현(縣) 등 7개 지역이다.

일본산 농산물 수입 잠정 중단 지역 및 품목 (2012. 4. 9 현재)

순번	지역명	수입잠정중단 품목	일 자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1	도치기현,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2011. 3. 25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2	지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2011. 4. 4
3	후쿠시마현	버섯류	2011. 4. 14
4	후쿠시마현	죽순, 청나래고사리	2011. 5. 12
5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기현	차(茶)	2011. 6. 3
	후쿠시마현	매실(梅實)	
6	군마현	차(茶)	2011. 7. 4
7	후쿠시마현	유자	2011. 8. 30
8	후쿠시마현	밤	2011. 9. 21
9	지바현	버섯류	2011. 10. 12
10	이바라키현	버섯류	2011. 10. 17
11	도치기현	버섯류	2011. 11. 7
12	후쿠시마현	쌀	2011. 11. 18
13	후쿠시마현	키위	2011. 12. 9
14	미야기현	버섯류	2012. 1. 17
15	지바현	죽순	2012. 4. 6
16	이바라키현	죽순	2012. 4. 9



철저한 방사능 검사

식약청은 일본 정부에서 섭취 또는 출하제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하는 등 일본 동향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지역 농산물과 비오염 지역 농산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식품의 유통 판매와 관련해 서도 일본산 식품을 매 수입 건마다 정밀검사를 하고 있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혼입된 제품이 수입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다. 또한 식약청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일본원전 식의약 정보방'에 지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방사성 세슘($^{134}\text{Cs}+^{137}\text{Cs}$) 기준을 현행 370Bq/kg에서 100Bq/kg으로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번 기준 강화는 최근 일본 정부가 4월 1일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기로 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하여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검사 강화 조치 이외에도 유통관리 체계도 강화 중이다. 이를 위하여 영업자가 일본산 수입 원료를 납품 받을 때 방사능 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고, 일본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자사제품에 대하여도 될 수 있으면 방사능 검사를 하여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방사능 검사기관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35

